

집합주거 리모델링의 투명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haracteristic of Transparency in Apartment Remodeling

윤재은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김범중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과정

Yoon, Jae-Eun

Dept. of Interior Design, KMU

Kim, Bum-Jung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MU

• Key words: Transparency, Simultaneous, Ambivalenc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C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속한 도시 이미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의 변화는 주거문제를 낳게 되고 이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가 도심의 한복판을 차지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또한 집합주거의 등장은 도시의 이미지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눈부신 과학의 발달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도시화를 초래했고 도시화는 새로운 단위의 집합주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집합주거는 도시를 블록화 시키며 여유로운 삶의 공간을 점차 침범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이러한 도심 속의 집합주거가 가지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명성은 철과 유리가 대량생산되면서 새로운 조형언어로 자리 잡아 공간 자체의 조형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투명성은 과거 큐비즘(Cubism)과 콜라주(Collage)에서 보여지는 동시지각적 관념과, 콜린 로우(Colin Rowe)의 투명성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더욱 구체화, 가시화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집합주거 리모델링의 투명성 표현 특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투명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일반적 문헌조사와 역사적 사조에 나타나는 투명성의 관념에 대해 고찰하며, 건축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내 서울, 경기 지역에 분양된 아파트를 사례로 집합주거에 적용될 수 있는 투명성의 상호 관계성에 관하여 연구하여, 집합주거 리모델링의 투명성 표현에 관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투명성의 근원적 고찰

2.1 투명성의 개념 및 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이란 단일의 물체로 존재하는 물리적 성질과는 달리 두 사물 이상의 존재가 동시에 지각되는 실체의 속성을 의미하며 대상(Object)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전달 체계이다. 따라서 구축되는 형태구조 및 중첩에 의하여 공간의 다중성을 암시하며 공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로서의 투명성은 공간을 파악하는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다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2 투명성의 이론적 배경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스트(Post modernist)에게 꼴라쥬(Collage)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건축가와 비평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콜린 로우(Colin Rowe)는 투명성을 현상적 투명성(Phenomenal Transparency)과 가시적 투명성(Literal Transparency)으로 분류하였다.¹⁾ 그가 말한 현상적 투명성은 물체나 공간의 보이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입체파(Cubism)의 회화를 통하여 시도되었다. 가시적 투명성은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벽(Wall)에 대한 개념으로서, 안과 밖을 구분 짓는 물체의 물리적 투명성을 말한다.

큐비즘에서의 투명성은 모든 사물의 연관성 표현에서 시작된다. 세잔(Cezanne)은 물체 하나의 독립적 형태표현에서 벗어나 물체와 공간, 자연과 사물의 상호 존재의 관련성을 인식하려 하였다. 그리고 다시점(多視點)에 의한 공간구성의 변화를 한 화면에 표현함으로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대상의 표현에서 벗어나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잔의 영향으로 자연의 형체는 점차 단순화, 입체화되었으며 구조적이고 탈 환영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분적 결합에서 벗어나 대상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켰다. 그 결과 표현대상은 수많은 선과 면으로 분해되었고 재결합을 통하여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이 내포된 구조적 화면으로 구성되어졌다.

2.3 건축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철과 유리의 대량생산은 기존의 공간 개념에 대한 사고와 관념을 변화시켰다. 종래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던 벽의 하중을 줄이는 대신 유리라는 소재를 통하여 비 물질화 경향을 추구한 것이다. 그 시초는 1851년 조셉 팍스頓(Joseph Paxton)이 영국 런던에 건설한 수정궁(Crystal Palace)이다.

야수파(fauvism)나 독일표현주의의 관념을 구체화 하고자 한 표현주의 건축은 그들이 처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를 미래지향적인 이상(理想) 세계로의 인도를 추구하였으며 매개체로 유리라는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 1914년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가 설계한 유리의 집(Glass house)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리 블록을 사용하여 유리의 명확성, 투명성, 순수성을 표현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그 시대 건축가들이 공유했던 비현실적이고 유

1) The Cornell Journal of Architecture, Vol 2, 1982, P.55.

토피아적인 관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현주의자들이 추구한 투명성은 지극히 관념적이며, 복잡한 사고와 감성의 소비를 요구했다.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명이 필요했으며, 정제되어진 투명성의 표현이 필요했다.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에게 유리는 완벽한 명확성과 비 물성화된 성격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그는 투명성에 보다 명확하고 단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유리의 투명성을 통해 표현주의적 이상이 잔재된 합리성과 감성의 순회를 꾀하였다.

2.4 투명성의 특성

근대 이후,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투명성의 개념은 오늘날, 시각적 양면성을 나타낸다.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의미하는 양면성은 내부와 외부에 대한, 밝음과 어둠에 대한, 혹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유희적 표현이다. 또한 투명성은 어떤 실체나 존재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실체적 존재의 진실적 측면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인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성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투명적 경계는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공간을 인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인식할 수 없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물리적 성질로 구분되던 가시성, 비가시성이 투명성으로 인해 빛의 유입과 반사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면적 특성은 인간의 시각에 혼란을 자아내고 보여지는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즉, 두 개의 공간사이를 구분짓는 유리벽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시키지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직접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단지 시각적 가능성과 인지성만 내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시성과 비가시성으로 구분되던 내부와 외부와의 경계는 투명성으로 인해 그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건축에서의 경계는 내부와 외부의 두 공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이며, 또한 이를 공간을 결합시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투명성이 부여되면서 가시성이 아닌, 선형적인 경험이나, 기억, 혹은 지각적인 경험을 통해 경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3 투명성 표현에 의한 집합주거 리모델링 사례분석

7개의 선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투명성의 표현특성은 모던 건축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층과 벽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여 단위 세대의 Void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거실창문과 발코니창문의 이중적 구조로 조망공간의 형식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단위세대 공간계획의 경우, 공적공간(Public space)과 사적공간(Private space)에 관계없이 Solid한 벽면으로 구분되어지며, 일부 특정한 공간(거실, 안방)만이 외부로의 시선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가시적 공간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개별화, 차별화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취지에 어긋나는 역기능도 발생한다. 물론, 일부 건축물들은 거실과 발코니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내부공간의 확장을 꾀하거나 유리피막의 전면사용으로 사이공간 개념을 없애고 보다 많은 외부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표1] 선정 아파트별 투명성 표현 특징

업체	위치	특징
대림	방화동	건축물 전면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면을 사이공간(발코니) 안쪽으로 끌어들여 내,외부의 공간 개념을 명확히 함.
두산	둔산	이중적 사이공간(발코니) 구조로 가시적 투명성을 강조함.
롯데	여의도	유리를 피막으로 건축물의 표피를 형성함으로서 Void 공간이 확장됨
벽산	수원	거실 전면의 일부가 벽으로 구획되어 유리벽이 아닌 유리창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남.
삼성	길음동	사이공간(발코니)의 위치가 타 공간보다 안쪽으로 침투되어 공간적 깊이감을 나타냄.
쌍용	한강로	건축물 전면의 Void 공간을 축소하고 거실과 발코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내부공간을 확대함.
현대	상도동	거실과 방의 사이공간(발코니)을 구분하여 Void 공간의 기능을 한정 시킴.

등의 투명성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아파트가 기능에 충실한 단조로운 벽과 창문의 분할로 집합주거 전체의 표준화를 형성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집합주거 리모델링의 투명성 표현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 환경적 측면-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의 안과 밖의 개념을 자연과 인간의 상호 관련적 측면으로 인식함으로서 사이공간의 기능을 외부로의 확장, 혹은 내부로의 흡수를 꾀하여 내,외 구분의 모호함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간간의 상호 침투성을 나타낼 수 있다.
- 공간적 측면- 외부로의 시선을 제한적으로 유입하는 유리창의 개념보다 유리벽의 개념으로 보다 많은 조망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별에 따라 투명한 벽의 사용으로 시각적 양면성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술적 측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중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고 가벼워 지려는 경향과 공간의 비 물질화 경향을 반영하여 집합주거의 외부가 유리를 피막으로 하는 표피로 인식될 수 있다.
- 인간적 측면- 외부 조망이 가능한 공간의 가변적 설계로 사용자의 특성과 개성적 욕구에 따라 그 기능이 변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투명한 공간과 인간의 행동이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참고문헌

- Colin Rowe, 근대건축론집, 윤재희, 지연순공저, 세진사, 1987
- 윤장섭, 서양현대건축, 보성출판사, 1988
- Rosemary Lambert, 20세기 미술사, 이석우역, 열화당
- Edward F. Fry, 큐비즘, 김인환역, 미진신서
-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 집합주거 설계계획, 시공문화사, 2002
- 아파트 특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2001
- 이재호, 현대건축의 공간적 투명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1990
- 윤성훈, 현대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1998
- 문정숙, 현대 실내 건축에 있어서 유리가 미친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